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및 자진 사퇴 촉구 건의안

(전 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
----------	----

발의연월일: 2026년 9월 4일
대표발의자: 전 정 의원
공동발의자: 손병화 의원, 조용근 의원,
박인섭 의원, 최옥주 의원,
최상진 의원, 이혜숙 의원,
박성희 의원, 이강무 의원,
위정희 의원, 김안나 의원,
박순옥 의원, 박순례 의원,
이원우 의원, 유미현 의원,
정성일 의원, 정동배 의원,
김서윤 의원, 이희승 의원,
채승우 의원, 박지선 의원,
강정선 의원, 김언주 의원,
이승희 의원

1. 주문

- 김대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신뢰와 자질, 공직윤리 및 전문성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공공성과 구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김대남 이사장의 자진 사퇴와 송파구청장의 즉각적인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고, 임원 선임 과정의 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생활밀착형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상당한 구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공기업으로, 그 이사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전문성, 도덕성 및 구민의 신뢰가 요구됨.
- 김대남 이사장은 대통령실 재직 당시 공개된 통화 녹취에 따른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자질 논란, SGI서울보증 상근감사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공직윤리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지방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로 검증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난 7월 31일 송파구의회 내에서 김대남 이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지역사회에서도 우려가 이어진바, 공단의 공공성과 구민 신뢰 회복을 위해 김대남 이사장의 자진 사퇴와 해임을 촉구하고, 임원 선임 과정의 검증 기준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76조(설립·운영)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임원),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4. 이송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및 자진 사퇴 촉구 건의안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약 65만 송파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송파구의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이다. 2026년도 송파구 예산에서만 261억 6,733만 3천원의 구 예산이 공단 관련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생활밀착형 시설을 책임지고 있다. 그만큼 공단 이사장에게는 공공성과 전문성, 도덕성, 구민의 신뢰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2026년 7월 29일 임명된 김대남 이사장은 이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

첫째, 이른바 ‘정치인 공격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실 재직 당시 특정 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녹취가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둘째, SGI서울보증 상근감사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둘러싼 공직윤리 논란도 제기됐다. 공개된 사용내역에는 연휴 및 휴가 기간의 법인카드 사용과 강릉·서울 소재 호텔 및 식당 결제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두고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셋째, 송파구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방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평가·검증됐는지에 대한 송파구청의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음을 구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공공기관 인사의 원칙과 송파구민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지난 7월 31일 송파구의회 내에서 김대남 이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제기됐고, 같은 시기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인사를 둘러싼 반대와 우려가 이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송파구민이 선출한 의회에 대한 협치의 실종이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 사안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급기야 의회와 구청이 새로운 출발과 협치를 다짐해야 할 공식적인 개원기념식에서까지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견제 기능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의회가 침묵하는 것 역시 협치가 아니다. 지방자치는 상호 존중과 견제,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 구민이 선출한 의회의 목소리마저 외면한다면 결국 무시당하는 것은 의회가 아니라 송파구민의 뜻이다. 어떠한 인사권자의 판단도 65만 송파구민의 신뢰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65만 송파구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김대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

하나. 송파구청장은 구민과 의회의 엄중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김대남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여, 전문성과 도덕성, 공공성을 갖춘 인사를 투명한 절차로 다시 선임하라.

하나. 송파구청장은 김대남 이사장 선임 과정과 인사검증 기준을 구민과 의회 앞에 명백히 밝히고, 이번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하라.

하나. 송파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임원 선임 과정의 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

아울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끝내 외면될 경우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각종 안전 심의 등 관계 법령이 의회에 부여한 모든 견제와 감시의 권한을 엄정하고 단호하게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송파구청은 더 이상 구민과 의회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대남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김대남 이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2026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손병화 의원, 조용근 의원, 박인섭 의원, 전 정 의원, 최옥주 의원,
최상진 의원, 이혜숙 의원, 박성희 의원, 이강무 의원, 위정희 의원,
김안나 의원, 박순옥 의원, 박순례 의원, 이원우 의원, 유미현 의원,
정성일 의원, 정동배 의원, 김서윤 의원, 이희승 의원, 채승우 의원,
박지선 의원, 강정선 의원, 김언주 의원, 이승희 의원